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서면질문)

【교통행정과장 : 최삼석 / 교통시설팀장 : 김시각 / 주무관 : 계약다급 정준택】

연락처(☎) : 2600-4136

## 최영자의원 구정 질문내용

- 버스노선 안내표지판이 노후되고 퇴색된 것이 많으며 규격, 색상, 디자인도 다르고, 승차대 등 설치 시설물도 달라 일관성이 없으므로 버스안내표지판을 우리구 여건에 맞게 디자인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버스증강전용차로 정류장처럼 설치를 건의하며, 2011년 버스노선 안내표지판 정비예산 1억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을 유보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버스노선 안내표지판이 불법 침지물 및 부착 자극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불법 침지물 근절과 정류장 옆 공중전화 부스 등으로 위의 불필요한 시설물 철거 등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내용 ----- (교통행정과)

- 먼저 항상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개선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최영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내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노선안내 표지판은 2004. 7월 1일 대중교통은행체제 개편시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별도의 설치기준은 없었으나, 당시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현재의 모델로 결정·설치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그중 노선도 변경 또는 훼손 및 파손된 것 위주로 수시 서울시에 요청하여 교체 및 정비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의 교체대상 물량이 매년 한정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주민 불편 및 민원 해소차원에서 2008년부터 구비 및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를 투입 75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자체 설치한 안내판에는 구 마크 등을 표기함에 따라 기존 설치 모델과 약간 상이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11년에는

구비 1억원의 예산으로 20개소를 보완·설치코자 하였으나, 그 해 서울시와 KT(한국통신)과의 협약에 따라 버스정류장 시설물을 개선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으로 인하여, 자칫 예산이 중복 집행될 우려가 있어 집행을 보류하고 서울시에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보완·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현재 버스노선안내표지판을 포함한 모든 시내버스정류장 시설물은 서울시에서 KT와 협약을 체결하여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시 디자인조례에 의거 디자인심의를 거친 모델(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노선표시)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표지판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정비가 완료되면 강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통일적 디자인 제품이 설치될 것입니다.

※ 참고로 서울시와 KT(한국통신)과의 주요 협약내용은

【- 협약기간은 2011년 9월 ~ 2019년 9월까지 (8년간)

- 서울시의 모든 시내버스정류장 시설물을 KT(한국통신)에서 서울시 디자인 인증제품으로 신설·교체하고 유지·관리하며
- KT(한국통신)은 시내버스정류장 시설물에 광고를 유치하고 그 수익금으로 관련 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관리한다.
- 추진계획은 2014년까지 시설물의 교체 및 신설, 2019년까지 유지관리하고 그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다】입니다.

- 버스정류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 부스는 관리주체인 한국통신에 확인 결과, 민원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통화량 유지를 위하여 우리구 가로변에 201개의 부스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요청하였습니다.
-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불법침지물에 대해서는 현재 버스정류장 등에 공공근로 14명을 2개조로 편성하여 수시로 제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불법침지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여성가족과장 : 박관숙 / 여성정책팀장 : 송삼선 / 주무관 : 행정9급 이상미】

연락처(☎) : 2600-6794

## 최영자 의원 서면질문 내용

(2)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관심을 갖자

### □ 답변내용 ----- (여성가족과)

- 3.1절을 맞아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해결이 촉구되는 시점에서 이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현재 우리구에 거주하시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는 총 4분으로 매월 (시비)500천원, (국비)958천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1,200백만원 한도 내에서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병비 지원을 받으시는 분은 현재 3분으로, 황금자(88세), 김경순(86세) 할머니는 가정간병을, 김복선(86세) 할머니는 병원간병을 받고 계십니다.
- 강서구장학회 기부로 유명하신 황금자 할머니께서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여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아 추가지원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 중 최고령이신 하점연(90세) 할머니께서는 주로 가양동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서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 또한, 구 및 동 담당자가 수시로 안부전화 또는 가정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문간호사도 월 1회 이상 할머니들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이신 할머니들의 건강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의료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가정방문 상담하여 보살퍼드림으로써 위안부 할머니들이 경제적·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항상 구민을 보살피는 일에 열성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존경을 보내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